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사설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89호 [루체 제25232호] 주제 105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1950년대의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원대한 포부와 훌륭한 신념으로
장성국가건설의 최종성과를 열어나
가는 오늘의 전진군은 항일의 협전
만리,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승
리의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는 성스
려운 무령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우에는 자주의 락성의 천지를 진
감하고 주체성의 무면평대한 우주
로 남아오는 민족사적인 특대사변
들이 떨어져 철저히 지고 있다. 선군조선
의 만리마기상에서 기적초풍한 미세화
하고 전세계력을 높여온 국방
부두에게 감행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은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방
파악자, 기술자들과 군수용업부문의
로동계급처럼 1950년대의 군자리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력자강의 무기력을 끌어쥐고
원주민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저부
시며 빠른대국민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펼쳐자는 우리 천만군민의
혁명의지는 익히들린다.

우리는 1950년대의 군자리혁명
정신으로 총정의 70일전투를 절대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갈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자지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군자리로동계급이 뿐만
한 영웅적자랑정신을 염원히 및지
말아야며 하며 대회를 두고 길이길이
이어나가야 한다!』

1950년대 군자리혁명정신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북한정
신의 계승이며 선군조선의 영원한 정
신적계보이다. 수령옹위, 조국사수,
혁명보위를 굳건히 하고 자력갱
생, 간교분투로 일관된 군자리정신은
준엄한 군대들이다. 영웅적위훈을 창
조해온 우리 혁명학자에 헌히 아
로새겨져 있다. 군자리정신은 떠나서
세계각국을 향해온 미제의 거만
한 고대를 끊고 전승의 7. 27을
안아온 군사적기적에 대하여, 이 땅
우에 자주, 지원, 자위의 사회주의강
국을 일떠세운 불굴의 기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은 끝이 전진하고 세대는 바
뀌었는데 철학도 빛할수 없는 것이 우
리 혁명의 근본원리이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끊임이 이어나가야 하는것

이 백발불구의 혁명정신이다.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철대

성, 푸조건성의 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칙에 대한 불
리는 체개심, 격쌓이는 고난과 시련
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 끌고나가는
강한 한 투쟁기풍, 바로 여기에 군자
리정신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선군혁명의 명기장을 얹착같이 다져
주시고 자주국방건설의 문화한 투데
를 바arend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물들의 암력을 실장속에 간직하고
수령옹위, 조국사수, 자력자강의 결
을 범화하여 철학을 짓기로 한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땅은 청진군에 오에는 언제나 군자리
혁명정신이 세차례 고동칠것이다.

군자리혁명정신은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니고 조국을 위하여 한족을 서
승없이 바쳐 싸우는 조국수호정신
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

자강력의 소유자들을 키워낸 진취적인 당사업기풍

주체

철 생산 공정 확립에서

발휘된 황해제 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일본새를 놓고

지난해에 우리식의 산소얼법용광로를 일떠세우고 당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에 없는 혁신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황철의 로동제금이 70일전투원 애전군의 앞장에서 계속 용기백배, 기세충진하여 전진하고있다.

총성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균 한달사이에 산소얼법용광로는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피와 살, 땀과 땀과 같다. 그처럼 여기에 혈연할수 있는 고뇌와 정성이 가을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 용광로를 자기들의 창조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단한 수령님들의 불변불후의 고교와 빛나는 혁도업적의 고귀한 경정재하고 높을을 미급하고 말한다.

산소얼법용광로건설의 나날에 환희화처럼 분출된 황철로동제금의 불굴의 정신력의 굳본력이 여기에 있다.

70일전투의 철야전군을 떠나고나가는 이곳 학교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그 나날에 대한 추억이 소중히 간직되었다.

결승질을 생는길을 해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산소얼법용광로건설에서 당위원회 일군들이 무엇으로 천번한 것은 면학기업소 일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력이었다.

지난해 2월, 산소얼법용광로건설을 위한 단계별작전이 통하고 크게 세워지면 때였다.

이곳 학교기업소 일군들은 충고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하게 일관을 벌리는것은 죽지만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실제의 길은 한걸레, 만간래이고 성공의 길은 하나이다. 만일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후파를 뛰어쓰고 보상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조금도 주춤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 생산자대속에 들어갔다. 나아 70교대에 이은 김종남동무처럼 황철에 헌생의 길은 한걸레, 만간래이고 성공의 길은 하나이다. 만일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후파를 뛰어쓰고 보상할수 있겠는가.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간일』이라는 것은 황철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것, 산소얼법용광로는 성장시킬때 대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물을 죽으나마나 판관체에 한다는것, 그것을 뜯어내면 황철로동제금의 존재명분이 없다는것이었다.

당책임일군의 충격은 커다란 심상이 뛰어왔다.

황철을 주제로 철련합기업소로 만드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교가 는데로드롭게 들어졌다.

일찍부터 비록스제 철련합기업소로의 청생산, 주체철련방으로 나갈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물을 철저히 전하였다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해란로가 숨죽이고 한 학교기업소가 주지 않았던 것과 같은 쓰라린 부

걸고 우연한 성과가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벽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배심있게 일하면 그 어떤 난관과 시리도 뿐고나갈수 있으므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황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주체철련

생공정 확립과정을 통하여 생산자대중을 위하여 자강력의 일주의로 뿐만 아니라 무장지지 않고 강도높게 진행되었다.

일군들속에서 우는소리, 조건따발이 없어졌다. 일별, 주별, 월별 전투파제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겸침받았다는 비상한 각오에 걸자제인 주경기품이 확립되었다.

그들은 사무실을 잊었다. 들끓는 현장이 그대로 사무실이고 집이었다. 1만 5, 000t 산소분리기설비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시간도 아까와 들어오지 않는 일군들을 놀 안타깝게 찾아나니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은 일군들이 분발된 정도를 높히 가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이 대중충동의 제일 큰 도화선이 되고 되었다.

전설자들은 떠와 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의 전통정신과 생활역

방에 편성되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분리기설비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오늘 산소얼법용광로의 거대한 노체우에

위엄으로 세계에 서 있는 것을 위대한

자강력의 일주의로 높아졌다.

산소얼법용광로 건설부지위의 워커들이 일군들을 벌이는 철원 70일전투에서도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

되고있다.

『주체는 생명』,

공산주의가정의 정신세계는 만사람의 심장속에 애국의 불을 지펴준다

기사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인간, 공산주의가정》의 주인공들이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햄은 정치적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행실과 도덕적의리에 기초하여 행동생활을 가장 순결하고 끝고하고 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당보에 실린 한원의 기사가 키다란 전폭으로

천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다.

인민이 좋아하는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로동신문》 3월 21일부에 실린 기사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인간, 공산주의가정》에는 이런 대목의 문구들이 있다.

《우선 제미로 수십년동안 이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고난의 행군시기 직업에 마음을 불이지 못하고 있다가 작업반 당시 포비서였던 최정순녀성의 전정에 감복되어 다시 일터에 선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을이다.

그때 최정순동무는 주민들이 속상해 하면서 이를 말끔히 고쳐주고 손을 씻을 때 얼마나 바빠서 오호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것보다 더 좋은것이 있는가?

바로 그였다. 최정순녀성은 인민들이 기뻐하는 재미에 한생 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의 기쁨이 그런 꽃은일도 스스럼없

어서서나 볼수 있고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다. 70일전투로 들끓은 온 나라 이르는 뜻마다에서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인간, 공산주의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끊을 펴우고 《최정순녀성과 나》, 《공산주의가정과 우리 가정》이라는 삶의 저울로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그들처럼 당앞에 다진 맹세를 한생도록 키지고 있다. 당시에 실린 한원의 기사가 키다란 전폭으로 천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다.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심장깊

이 새겨야 한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혁신적인 70일전투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달고 군관들과 민생현황상에서 전면을 가져오기 위해 한편에 불사하였다는 불변의 의지로 살며 무정한 열의가 온 나라 도처에서 활화산길

을 헤쳐온 군민은 던킨, 식료공장과 종이공장전용물품을 불이

번역 나게 다가치고 있는데 그 기세가 절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인민이 누릴 라파행복은 진적으로 우리 일군들의 두어에에 지워져있던 것을 멀

심하고 인민의 침울하고 한생

한 실부문으로 살기 위해 최

정순녀성처럼 날이 달도록 뛰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위생시설수리공이 없으면 도시의 생활의 흐름이 멎기기에 최

정순녀성은 위생시설수리공의 일을 제일 좋고 가장 중요한 일

아야 할 또 하나의 살피투쟁의 좌우명이 아니겠는가.

하기 위해 중화군당위원회 책임

비서 조정성동무는 기사를 읽고

난 자기의 심장을 걱정에 넘쳐 이야기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외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나친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의

를 철저히 구현함에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밟았을 어떻게 살피

으면 그것이 곧 달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진실하고 둘보이는 모

습인가. 정말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일군들이 위해 한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여 당

사업전반에 인민대중체육회의

높은 뜻을 밟았을 어떻게 살피

는 삶이야말로 끝났고도 영웅

또 뛰겠다.

어찌 이것이 그 한 사람만의

실정이라고 하라.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

인간, 공산주의가정처럼 인민

을 높이 달고 군관들과 민생현

황상에서 전면을 가져오기 위

한 편비단이 불고있다. 군인의 일

군들과 당원들, 군로자들이 한사

람같이 뛰쳐나온 던킨, 식료

공장과 종이공장전용물품을 불이

번역 나게 다가치고 있는데 그 기

세가 절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듯 인민을 위한 멀사복무

정신을 빼어내고 산 최정순녀성

한 번 짐작해 준다. 사실 연장길이

나오기 10m에 달하고 그 무게가

10t이 넘는 편집차를 불고 하

늘을 올려다보며 가로로 막걸

립 살며 투쟁할 온 나라 천만군

민의 한길같은 지향속에 이

여기 가나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염주군 화석협동농장

작업반장 김영일동무의 이런 불

같은 토로속에, 시대의 주인공처

럼 살며 투쟁할 온 나라 천만군

민의 한길같은 지향속에 이

여기 가나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일하는 산림칼초소도

최정순녀성의 지켜서 일미처럼 조

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하고 책임직인 초소

이며 고령마을의 산발을 활급금

보통산으로 가버가는 것을 대로 이

어 영원히 지켜가야 할 우리 가정

의 땅심이라고 생각한다.

땅파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

한 순결한 땅심을 한생토록 간

직하고 말거운 초소를 굳

건히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최정순녀성의 가정과 같은 공산

주의가정의 첫째가는 가정이다.

나는 신의 주를 정화사업으로

당과 최정순녀성과 그의 가정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향상과 전진

나는 그들이 한길같은 지향속에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기사의 주인공들처럼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일에 자

신의 힘으로 한생을 꾸준히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공산주의인간, 공산

주의 가정!

땅파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

한 순결한 땅심을 한생토록 간

직하고 말거운 초소를 굳

건히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최정순녀성의 첫째가는 가정이다.

나는 신의 주를 정화사업으로

당과 최정순녀성과 그의 가정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향상과 전진

나는 그들이 한길같은 지향속에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기사의 주인공들처럼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일에 자

신의 힘으로 한생을 꾸준히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공산주의인간, 공산

주의 가정!

땅파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

한 순결한 땅심을 한생토록 간

직하고 말거운 초소를 굳

건히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최정순녀성의 첫째가는 가정이다.

나는 신의 주를 정화사업으로

당과 최정순녀성과 그의 가정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향상과 전진

나는 그들이 한길같은 지향속에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기사의 주인공들처럼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일에 자

신의 힘으로 한생을 꾸준히

나오기 10m에 놓기 말아야

한 땅심의 투기, 전세대들의 대

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공산주의인간, 공산

주의 가정!

땅파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

한 순결한 땅심을 한생토록 간

직하고 말거운 초소를 굳

건히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최정순녀성의 첫째가는 가정이다.

나는 신의 주를 정화사업으로

당과 최정순녀성과 그의 가정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향상과 전진

